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 경계에서 경계지대로*

우 석 균
(서울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글로리아 안살두아의 『경계지대/국경』을 통해 저자의 경계지대 기획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지리적 상상력의 강력한 흐름 중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개념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가령, 미국의 국제 정치에서 고립주의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경계선 긋기와 경계선 넘기를 선택하는 경계선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기획은 경계라는 분할선을 경계지대라는 공간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는 경계선 권력에 대한 도전이요, 고립주의를 낳은 지리적 상상력에 대한 도전이고, 궁극적으로는 역사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역사 전쟁은 단지 치카노인들의 복원을 겨냥한 민족주의적 전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현재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글로리아 안살두아, 『경계지대/국경』, 경계, 경계지대, 경계선 권력, 역사 전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1. 들어가면서: 희극만 반복되는 역사



[그림 1]

마르크스의 말 중에서 이따금 회자되는 구절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라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멕시코 국경을 둘러싼 최근 해프닝을 보면 끝없이 희극이 되풀이되는 역사도 있는가 보다. [그림 1]은 조지 W. 부시 집권 시절인

2008년 말 국경에 세워진 철제 장벽이다. 물론 불법 이민자들을 막을 의도로 세운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이 철제 장벽을 넘나드는 사람은 여전히 많았다. 단지 불법 이민자들만 넘나든 것이 아니다. 이 장벽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가르는 것은 그렇다 치고, 농장과 심지어 텍사스대 학교 브라운즈빌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부조리한 현실을 야기했으니! 인근 주민들이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희극이 발생한 지 10년도 안되었건만 트럼프는 동일한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높고 튼튼해서 사람들은 물론 시야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벽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일은 대통령 선거전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는 벽이 아닌 다리를 놓을 것이다”(We build bridge not walls)라고 선언한 일이다. 힐러리 때문이 아니라 글로리아 안살두아 때문이다. ‘다리’는 안살두아가 즐겨 쓴 수사였던 것이다. 과연 힐러리가 안살두아를 염두에 두고 그런 선거 캠페인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장벽’은 주기적으로 고개를 드는 미국 고립주의, 즉 자국 경계에 대한 집착이 유별난 지극히 미국적인 지리적 상상물 상징하는 사물이고, 안살두아는 대표적인 저서 『경계시대/국경』(*Borderlands/La Frontera*, 1987)²⁾에서 그에 반하는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한 바 있다.

1) 브라이언 W. 블루엣·울린 M. 블루엣,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주제별 분석과 지역적 접근』, 김희순·강문근·김형주 옮김, 까치, 2013, 344쪽.

2) 『경계시대/국경』의 국문 인용문에서 굵은 글씨 부분은 원문이 스페인어인 경우

그리고 이 책에서 ‘다리’는 국경 철책과 달리 두 지역을 잇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안살두아는 페미니즘이나 치카노/나 연구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워낙 커다란 족적을 남겼지만, 경계연구에서도 선구적 역할을 했다.³⁾ 그리고 이 방면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경계지대/국경』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책을 통해 안살두아의 지리적 상상력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텍스트 분석은 제1장 「고향, 아스틀란」(The Homeland, Aztlán)에 국한시켰다. 물론 언어적 억압 문제를 다룬 5장 「어떻게 야생의 혀를 길들일 것인가」(How to Tame a Wild Tongue)와, 에세이 장들 뒤에 오는 시 부분 등을 비롯해 언급할 만한 대목이 더 있다. 그러나 워낙 개인적으로 1장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글에서는 좀 더 꼼꼼하고 차분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또 초점도 미국—멕시코 국경 자체보다는 근대성/식민성 연구의 관점에 입각해 앵글로 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의 경계 분석에 맞춰져 있었다.⁴⁾ 그래서 연구를 중간부터 시작한 느낌이 들어 이번에는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지난번 글과 달리 특정 이론들의 틀에 의존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했다. 대신 안살두아의 지리적 인식내지 상상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비판이고, 어떤 점에서 새로운 제안인지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II. 아스틀란과 역사 전쟁

『경계지대/국경』의 제1장 「고향, 아스틀란」은 치카노인의 역사를 간략

이다. 원문에서는 영어는 정자체로, 스페인어는 이탤릭체로 되어 있다.

- 3) 『클로리아 안살두아 독본』을 편찬한 아나루이즈 키팅은 이 세 가지 영역 외에도 글쓰기 이론, 문화연구, 민족학, 문학연구, 비판적 교육학, 퀴어 이론 등에도 많은 영향을 남겼다고 말한다(AnaLouise Keating, “Introduction”, The Gloria Anzaldúa Reader ed. by AnaLouise Keating,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9, p.9.)
- 4) 특히 다음 부분에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계를 고찰했다. 우석균, 「클로리아 안살두아, 앵글로 아메리카 이후」, 『지구적 세계문학』 7호, 2016, 163-168쪽.



[그림 2]

히 요약한 장으로, 아스틀란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멕시코 이주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기술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1장의 제목은 물론이고, 1장의 첫 번째 소챗터 제목과 두 개의 제사(題詞) 모두 일정한 지리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익히 알다시피,

아스틀란은 아스테카인들이 멕시코로 남하하기 전에 살았던 땅으로 오늘날의 미국 남서부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1장 제목 ‘고향, 아스틀란’은 아스테카인은 물론 치카노인의 기원 신화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아스틀란’을 ‘고향’이라고 명명할 때, 신화적 공간에 일정한 정서를 부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1장의 첫 번째 소챗터 제목은 ‘**또 다른 멕시코**’(El otro México)이다. 제목의 의도는 첫 번째 제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소위 ‘노르테나 음악’(música norteña)이라고 불리는 멕시코 북부지방의 음악으로 인기를 끈 치카노 그룹 ‘로스 티그레스 델 노르테’(Los Tigres del Norte, 북부의 표범들)의 노랫말인데, 미국(아마도 미국 남서부)을 “**또 다른 멕시코**”이자 “**민족의 땅**”(territorio nacional)이라고 부르고 있다. 두 번째 제사는 아스틀란의 위치를 미국 남서부로 못 박고 있다. 첫 번째 소챗터 제목과 두 개의 제사를 통해 안살두아는 [그림 2]와 같이 멕시코 영토도 아니지만 미국 영토도 아닌 아스틀란만의 독자적인 영토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⁵⁾

사실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미국 남서부 전체가 다 아스틀란이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스틀란 신화를 역사적 실체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조차 그 위치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5)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2nd ed.,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1999, p.23. 두 번째 제사는 안살두아가 다음 책들을 인용했다. Jack D. Forbes, *Aztecas del Norte: The Chicanos of Aztlán*, 1973; Eric R. Wolf, *Sons of Shaking Earth*, 1959.

플로리다, 위스콘신 등 개별적 장소를 거론할 뿐이다.⁶⁾ 그런데도 안살두아는 애매모호한 서술로 아스틀란의 영토적 범위를 최대한 확장한다. 한편으로는 기원전 3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이 텍사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이 “치카노인의 옛 선주민 조상”이라고 서술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고학자들이 미국 남서부에서 20,000년 전의 주거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이 “아스테카의 기원인 에텐동산 같은 장소”인 아스틀란이라고 단언한다.⁷⁾

안살두아의 이러한 지리적 상상은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다. 1969년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열린 제1회 치카노 전국대회를 기해 민족주의와 민족 자결을 강조한 「아스틀란 정신 계획」이라는 문건⁸⁾이 채택되었을 때부터 치카노인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게 된 상상력이다.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고조되면서 함께 각성하게 된 히스패닉인들의 적극적인 인정(認定) 투쟁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급진적 민족주의 시대”⁹⁾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스틀란은 간간이 몇몇 문헌이나 저서 혹은 문학 작품에서 언급되었을 뿐이지,¹⁰⁾ 이처럼 민족의 성지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스틀란에 대한 상상은 결코 한 시대의 산물로만 치부할 일도 아니고 지리적 상상력으로만 국한시킬 일도 아니다. 치카노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소설 『아스틀란의 심장』(*Heart of Aztlan*, 1976)을 쓴 로돌포 A. 아나야는 미국 남서부에 대한 치카노인과 백인의 권리 주장을 각각 ‘전설에 입각한 권리’(rights by legend)와 ‘조약에 입각한 권리’(rights by treaty)의 대립으로 정의한다.¹¹⁾ 여기서 조약이란 1848년의 과달루페이달

6) Luis Leal, “In Search of Aztlán”, *Aztlán: Essays on the Chicano Homeland*, ed. by Rudolfo A. Anaya and Francisco A. Lomeli, 4th ed.,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98, p.10.

7)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6.

8) “El Plan Espiritual de Aztlán”, *Aztlán: Essays on the Chicano Homeland Anaya*, pp.1-5.

9) 후안 곤살레스, 『미국 라티노의 역사』, 이은아·최해성·서은희 옮김, 그린비, 2014, 337-344쪽.

10) 아스틀란을 언급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Luis Leal, “In Search of Aztlán”, pp.6-13.

고 조약을 가리킨다. 미국—멕시코 국경이 사실상 확정된¹²⁾ 조약이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에서는 물론이고, 이 조약 때문에 국경이 바뀌어 하루아침에 멕시코인에서 미국인이 된 치카노인들에게는 대단히 뼈저린 역사적 상처이다. 다시 말해, 아스틀란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은 아픈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극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백인 중심의 공식 역사에 대한 역사 전쟁을 선포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안살두아는 「고향, 아스틀란」의 두 번째 소챗터 「추방/잃어버린 땅」(*El destierro/The Lost Land*)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이전에 벌어진 일들을 다룬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앵글로인들의 불법적인 대규모 텍사스 이주, 미국 공식 역사에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장렬하게 전사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알라모 전투(1836), “**테하노(tejano)**¹³⁾들이 영토를 상실해 하루아침에 외국인이 되어 버린¹⁴⁾ 사건인 텍사스공화국 건국(1836) 등의 일련의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텍사스공화국이 결국 미국에 병합된 이듬해인 1846년 미국의 도발로 미국—멕시코 전쟁이 야기되고, 1848년 2월 2일 국경선을 누에시스 강에서 100마일 남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으로 확정하는 조항이 담긴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이 맺어지고, 그 결과 자신의 선조들을 비롯해 10만 명의 멕시코인이 또다시 국적이 바뀐 일을 서술한다.¹⁵⁾ 그 역사 속에서 치카노들은 집과 토지를 잃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역사에서 유리되었다. 그 역사는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1915년 치카노들이 텍사스의 작은 마을 샌디에이고에서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콜로라도,

11) Rodolfo A. Anaya, “Aztlán: A Homeland without Boundaries”, *Aztlán: Essays on the Chicano Homeland* Anaya, p.233.

12) 양국간 국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853년이다. 이 해에 미국은 남부 대륙횡단철도 건설과 미국인 거주지 보호를 목적으로 오늘날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최남단 지역을 멕시코에게 구입했다. 미국에서는 이 매입건을 협상 책임자의 이름을 따 ‘개즈던 구입’(Gadsden Purchase)이라고 부르지만, 멕시코 역사에서는 미국에 팔린 곳 지명을 따서 ‘메시야 늑약’(Tratado impuesto de La Mesilla)이라고 부른다.

13) ‘테하노’는 ‘텍사스인’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텍사스의 멕시코인을 가리킴.

14)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7.

15)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p.27-28.

캘리포니아 5개 주의 독립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텍사스 순찰대(Texas Rangers)가 이를 학살로 응징하고, 정부군까지 남부 텍사스에 개입하고, 인종적 증오가 한층 심화되었다. 두 번째 소챗터의 말미에서는 경제적 변화도 거론한다. 극심한 가뭄으로 그나마 남은 치카노 소농들이 빚을 지게 되고, 마침내는 토지를 잃고 소작인이 되는 과정과 백인 기업농으로의 토지 및 부의 집중을 다룬다. 안살두아 집안에게도 닥친 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세 군데 기업형 농장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텍사스공화국과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을 통한 국경선의 획정은 이렇게 치카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도 현재진행형인 역사였다.

III. 미국의 경계선 권력: 경계선 곳기와 넘기

미국인의 지리적 상상력에서 독특한 점은 경계선에 대한 집착이다. 1630년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교도 존 윈스롭(John Winthrop)이 사용한 ‘산 위에 있는 동네’(City upon a Hill)라는 표현에서 이미 그 징후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¹⁶⁾라는 구절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는 윈스롭이 개신교 공동체 건설과 유지의 열망, 세속적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겠다는 의지, 또다시 종교의 박해가 가해지면 자신들의 이상을 굳게 지켜내겠다는 각오 등을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명한 것이다. 이를테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외부 세력에 대한 철두철미한 경계선 곳기 행위였다. 식민지시대 초기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를 지배한 매더 가문의 일원으로 회중파교회(Congregational Church)의 목사이자 역사가인 코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도 유사한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는 1702년에 유럽의 종교개혁과 비슷한 시기에 비로소 아메리카가 발견된 것은 이 땅을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해 남겨둔 신의 섭리에

16) Holynet, <http://www.holybible.or.kr>.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나아가 스트라본의 지리학(Geography) 대신 기독교학(Christiano-Graphy)의 필요성을 주장했다.¹⁸⁾ 스트라본이라는 인물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였다. 소아시아 출신이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했고, BC 20년 이후 로마에 장기 체류하면서 『지리지』 17권을 남겼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지리, 정치, 역사 등을 망라한 저술이었다. 스트라본이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라는 점, 또 그가 『지리지』에서 자신의 본령인 지리와 역사를 넘어 정치까지 논했다는 점 등은 지리와 역사와 정치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역사, 특히 국제 정치사를 살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지리적 상상이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상이자 역사적 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미국 예외주의’ 혹은 ‘고립주의’라고 일컫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미국 독립의 아버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토머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 1776)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지리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 토머스 페인에 따르면 미국 이민은 구세계의 박해로부터의 탈출이고, 이 순간을 위해 하느님은 대서양이라는 대양을 두어 영국과 미국을 분리하여 종교개혁에 즈음해서야 아메리카 발견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했다.¹⁹⁾ 다만 토머스 페인은 미국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었을 뿐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에는 ‘경계선 넘기’도 수반되어 있다. 이를테면 수성과 팽창의 의지를 동시에 지닌 지리적 상상이다. 이 역시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볼 수 있는 현상이고, 필연적인 일이었다. 식민지시대 초기에야 청교도 이주자 등 종교적 이유로 미국에 건너온 이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고립주의 지리적

17) John. H. Elliott,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in America 1492-183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p.184.

18) John. H. Elliott,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in America 1492-1830*, p.184.

19) 피터 H. 스미스,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 이성형·홍욱헌 옮김, 까치, 2010, 67-68쪽.

상상력이 작동했지만, 이후에는 세속적인 이유로 대서양을 건넌 이들이 절대적 다수였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강의 해상 제국이자 상업 제국인 영국에서 온 이주자들이 다수였고, 이들을 사로잡은 지리적 상상은 ‘대서양을 아우르는 정치체’였다.²⁰⁾ 즉, 팽창의 욕구가 아주 강렬했다. 미국의 현대 정치에서 종종 포착되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자부심 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이러한 종류의 상상력, 언제든지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진취적’ 의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선 긋기’와 ‘경계선 넘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리적 상상력이 일견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세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한 미국이 필요에 따라 경계선을 긋고, 또 필요에 따라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권력, 즉 일종의 경계선 설정 권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텍사스공화국 건국에서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경계선 권력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안살두아가 인용하고 있는 윌리엄 H. 와튼(William H. Wharton, 1802~1839)의 다음 시를 보자. 이미 경계선을 넘은 뒤 앵글로 아메리카/멕시코 사이의 경계선 긋기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와튼은 텍사스공화국의 상원의원이었던 인물이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심은
 텍사스가 또다시 (...) 미개인들만
 득실대는 무지막지한 황무지,
 (...) 혹은 무지와 미신, 멕시코인들의 실정에 따른
 난장판과 약탈로 점철된
 무지막지한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앵글로 아메리카인들은
 이 약속과 성취의 땅[텍사스]에서
 영원한 주인이 될 것이다.

20) John. H. Elliott,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in America 1492-1830*, p.69.

그들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그들의 지식이 이 땅을 개화시키고,
 그들의 사업이 이 땅을 향상시킬 것이다.²¹⁾

앵글로 아메리카/멕시코의 경계선 긋기가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텍사스는 텍사스공화국으로의 별도 독립이 아니라 텍사스 주로 미국에 병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실제로 텍사스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샘 휴스턴은 이미 1836년 워싱턴에 대표를 파견해 텍사스의 연방 가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부당했고 병합은 1845년까지 미루어졌다. 여기에는 미국의 국내 사정이 작용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할 때였다. 그나마 양측의 세력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연방국가가 둘로 쪼개지는 일을 간신히 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텍사스를 선택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²²⁾ 이를테면 앵글로 아메리카/멕시코의 경계선을 새로 긋는 것보다 앵글로 아메리카/아프로 아메리카의 경계선을 고수하는 일이 더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이다. 미국 내 분위기가 바뀐 것은 1840년대에 접어들면서였다. 이 무렵 미국은 남서부 텍사스뿐만 아니라 서부의 오리건으로도 팽창하고 있었다. 텍사스의 서쪽과 오리건의 남쪽에 위치한 서부로 팽창하기 위해서는 텍사스공화국의 합병이 필요했다.²³⁾ 이제는 경계선 넘기가 더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개념이다.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번이 1845년 텍사스 병합을 주장하면서 「합병」이라는 글에서 제시한 개념이다.²⁴⁾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다. 1845년 마침내 텍사스가 병합되고, 1846년 미국-멕시코 전쟁이 발발하고, 1848년 중전과 함께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이 맺어졌다.

21)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9, 재인용.

22)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 vols., 황혜성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1, 제2권 74쪽.

23)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제2권 74-75쪽.

24) John L. O’Sullivan, “Annexation”, 1845,
<https://pdcrodas.webs.ull.es/anglo/OSullivanAnnexation.pdf>.

앞서 인용한 시는 제국이 행사하는 경계선 권력의 또 다른 속성도 보여주고 있다. 와튼은 “멕시코인들의 실정”을 거론하면서도 이들을 교화시켰겠다는 포부보다 “이 땅을 지배하고, (...) 이 땅을 개화시키고, (...) 이 땅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공간 점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제국의 경계선 너머를 빈 공간으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지리적 상상력의 단초를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흔히 베를린 회의(1884~1885)를 든다.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에 합의한 회의로, 그 결과 오늘날처럼 직선의 국경선들이 난무하는 아프리카 지도가 탄생했다. 아프리카를 고유의 지리적, 종족적, 문화적 경계를 지닌 공간으로 보지 않고, 빈 공간으로 인식했기에 가능했던 결정이었다.

그런데 프레데릭 잭슨 터너가 1893년 제시한 그 유명한 프런티어론도 유사한 시각을 드러낸다. 잭슨 터너의 핵심 논지는 앵글로 아메리카인이 서부를 황량한 야만의 땅에서 문명의 땅으로 바꾸었으며,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로 무장한 개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미국의 위대한 이념이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부의 성공적인 개척 덕분에 미국사의 첫 번째 단계가 영광스러운 완결을 지었다고 결론짓는다.²⁵⁾ 와튼과 마찬가지로 기존 경계 너머의 공간을 “황량한 야만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고, 서부 개척과 그에 힘입은 미국의 발전에 오직 앵글로 아메리카인만 기여했다는 뜻이다. 터너 잭슨을 비롯한 앵글로 아메리카인에게 서부는 철저하게 텅 빈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부는 물론 남서부도 미국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19세기 하반기 텍사스의 면화 생산과 목축업,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광업,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의 구리 생산과 모직 산업, 뉴멕시코와 콜로라도의 목양업 등의 융성은 국경이 넘어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미국인이 된 멕시코인들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다. 심지어 대륙횡단 철도가 완공되기 전 수송을 담당했던 이들도 주로 멕시코인들이었다.²⁶⁾ 따라서 와튼에서 잭슨 터너에 이르기까지 행사된 경계선 권력은 국적 바뀐 멕시코인, 즉

25) Frederick Jackson Turner,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1893,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pds/gilded/empire/text1/turner.pdf>.

26) 후안 곤살레스, 『미국 라티노의 역사』, 116-118쪽.

치카노인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IV. 경계에서 경계지대로

미국에서 라티노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계선 권력에 입각한 지리적 상상력에 대한 반론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라티노 관점에서 제기된 반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잭슨 터너의 프린티어론에 대해서는 선주민, 앵글로 아메리카계 이외의 유럽계 백인, 흑인, 아시아인의 기여도 있었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²⁷⁾ 하지만 미국—멕시코 국경 문제가 경계 문제의 상징처럼 부각되면서 라티노계의 ‘발칙한’ 상상력들은 단연 주목을 끌었다.



[그림 3]

특히 예술가들의 상상력들이 눈길을 끈다. [그림 3]은 마르코스 라미레스 에레(Marcos Ramírez Erre)가 티후아나와 샌디에이고 국경검문소 지척에 세운 높이 25미터의 <트로이의 목마>라는 작품이다. 우선 머리가 두 개인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

는 일방적 침투라는 상투적인 인식”과 “남쪽으로부터 온 이주자들이 현 상태를 무시하고 미국 내에 무언가를 불법적으로 반입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인식 모두를 깨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목마의 뱃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점도 이채를 띤다. 이는 미국인과 라틴아메리카인 모두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였다고 한다.²⁸⁾

27)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제2권 240쪽, 268쪽.

28)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 김은중 옮김,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 편,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옮김, 그린비, 2008, 262쪽.

티후아나의 소설가인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Luis Humberto Crothwaite)의 『경계를 넘기 위한 지침』(*Instrucciones para cruzar la frontera*)²⁹⁾의 「경계의 미사」도 ‘발칙한’ 상상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 사제인 루이숨베르토(Luisumberto)는 국경선을 “띠”³⁰⁾로 묘사하고, 자신의 종교를 경계라고 말한다.³¹⁾ 그러나 그의 종교는 경계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넘고 또 넘으라는 내용의 강론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건너지 않은 경계가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경계를 넘으십시오. 결국은 그러라고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라고 한계를 짓고, 그러라고 우리를 제약하고 도발하고 공격하는 거니까요. 그러라고, 만들어진 선을 넘으라고, 우리가 경계를 건너는 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라고.

누군가가 당신들의 길을 막으면, 건너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건너십시오.

누군가가 거기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건너십시오.

세상은 모든 이의 것입니다.

그리고-우리는-모두-잔치에-초대받았습니다.³²⁾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상상력들은 통렬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안살두아가 높이 평가받는 점은 이들보다 앞서 경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 나아가 대안까지 모색했다는 점이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경계에서 경계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대안이었다. 『경계시대/국경』의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두 개의 제사 뒤에 이어진 긴 시에 안살두아의 경계시대 기획이 잘 요약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육지와 바다의 대비를 통해 국경선이 주는 비애를 절절히 토로한 시이다. “바다에는 울타리를 세울 수 없다./바다는 경계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³³⁾ 반면, 육지에는 일명

29) 2002년 처음 출간되었고, 2011년 증보판이 나왔다.

30)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 「경계의 미사」, 박은영 옮김, 『지구적 세계문학』 5호, 2015, 87쪽.

31)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 「경계의 미사」, 91쪽.

32)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 「경계의 미사」, 114쪽.

“토르티야 커튼”(Tortilla Curtain)으로 불리는 국경 철책이 무려 1,950마일을 가로지르며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고 있다. 화자에 따르면, 139년 전에 세워져 녹이 슨 철책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여전히 “강철 커튼”로 느껴진다. 그리고 마치 육신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선사한다.

1,950마일의 길고 긴 절개된 상처가
하나의 마을을, 하나의 문화를 나누고,
내 육신 위로 길게 달려가고,
내 살 속에 울타리 막대들을 박아 넣으면서,
나를 가르고 가르네
나를 가르고 가르네.

이곳은 나의 집,
이 가시철사의
가느다란 면이.

(...)

나는 가바초와 모하도
사이에 놓인 다리(橋)³⁴⁾

이 세 개의 연에서 돋보이는 점은 첫 번째에서는 경계를 ‘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두 번째에서는 가느다랗다고는 하지만 ‘면’(edge)으로 인식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면’보다 더 확장된 ‘다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이어 이어지는 산문 부분에서는 미국의 경계선 권력을 넘어설 새로운 공간 인식을 촉구한다. 경계(border)와 경계지대(borderland)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경계지대라는 공간에 대해 성찰

33)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5.

34)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p.24-25. ‘가바초’(gabacho)는 차카노들이 백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모하도’(mojado)는 ‘등이 젖은 자’라는 뜻으로, 주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인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텍사스에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가리킨다. 차바퀴 속의 튜브를 타고 건너다보이니 등이 젖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제3세계가 제1세계에 비비적대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절개된 상처**이다. 그리고 딱지가 생기기 전에 다시 피를 흘리고, 두 세계의 피가 합쳐져 제3지대, 즉 경계문화를 형성한다. 경계는 안전한 장소와 안전하지 못한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경계는 분할하는 선이고, 우뚝 솟은 철책선 위의 좁다란 면이다. 경계지대는 자연스럽지 않은 분계선에 대한 정식 침전물이 야기한 모호하고 결정되지 않은 장소이다.³⁵⁾

또다시 ‘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과 ‘면’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선 시 구절에서 ‘면’은 “나의 집”이다. 안살두아는 이 구절을 1장의 마지막에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나의”를 “그녀의”로 바꾸어 “이곳은 그녀의 집,이 가시철사의/가느다란 면이”³⁶⁾라고 적고 있다. 직전에 이주 여성들이 겪는 이중, 삼중의 억압을 서술할 때 따른 교체이다. 아무튼 ‘면’을 이주 여성의 ‘집’으로 묘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다. 솔직히 말해 필자로서는 ‘면’이 때로는 두 지역을 분할하는 경계선이고, 때로는 ‘집’이라는 장소로 모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렵다. ‘집’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해야 할 장소마저 미국-멕시코 국경 때문에 위협받는 현실을 양가적으로 묘사했으리라고 추정할 뿐이다. 경계지대의 현실에 대한 안살두아의 적나라한 묘사가 그런 추정에 이르게 한다. “긴장이 바이러스처럼 경계지대의 주민들을 장악한다. 양면적 감정과 불안이 감돌고, 죽음은 낯선 자가 아니다.”³⁷⁾ 그 불안한 삶의 예로 친척인 페드로가 겪은 일도 서술한다. 그는 국경순찰대가 보는 앞에서 뛰는 ‘죄’를 저질렀고, 영어도 못하고 마침 신분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불법체류자로 오인 받아 멕시코로 추방되었고, 돈 한 푼 없이 추방되는 바람에 과달라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기막힌 일화이다.

35)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5.

36)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35.

37)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6.

이처럼 경계지대는 빠져린 아픔을 생생하게 상기시키는 곳이다. 그래도 안살두아는 작심하고 그 역사를 들추어낸다. 경계지대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논지의 초점은 20세기 멕시코인들의 미국 이주가 백인들이 흔히 말하듯 “조용한 침략”이 아니라 아스틀란으로의 “귀환 오디세이”(return odyssey)³⁸⁾라는 데에 맞춰진다. 이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살두아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521년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의 참상을 가슴 아픈 일로 서술하면서도, 정복이 야기한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지적한다. 첫째, 새로운 종족이며 메스티소이며 멕시코인인 새로운 인종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둘째, 아스테카 정복 후 스페인 모험가들이 선주민과 메스티소들을 거느리고 미국 남서부를 탐험하면서 아스틀란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멕시코 선주민과 메스티소, 미국 인디언, 스페인인들 사이에 “더 큰 혼혈”(greater mestizaje)³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스틀란의 주민이 다양한 인종으로, 또 수많은 혼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안살두아의 단언은 그녀가 치카노 민족주의 혹은 멕시코 민족주의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뜻한다. 그리고 이 대목과 앞서 인용한 시구 “나는 가바초와 모하도/사이에 놓인 다리”를 합치면, 안살두아가 생각하는 경계지대는 그 누구의 땅도 아니되, 동시에 모든 사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제안이 과연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일까? 뜻밖에도 최근의 미국 역사 서술에서는 잭슨 터너류의 프런티어론을 수정하여 미국이 아직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네덜란드인, 수많은 미국 선주민 부족 등 그 누구도 확고하게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던 중간 지역들(middle grounds)이 있었다는 역사관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⁰⁾ 묘하게도 비슷한 시각을 멕시코 소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카르멘 보우요사의 『텍사스』(2012)라는 소설로, 미국 소

38)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p.32-33.

39)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p.27.

40)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제1권, 116-117쪽.

도시 브루네빌과 멕시코 소도시 마타산체스를 배경으로 한 갈등을 그린 최근작이다. 이 두 도시는 안살두아의 고향인 리오그란데 계곡 지대에 있는 브라운즈빌과 마타모로스를 각각 모델로 하였으며, 아직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의 양금이 남아 있던 185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앵글로 아메리카인과 치카노인 혹은 앵글로 아메리카인과 멕시코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리라는 선입관과 달리 앵글로계 백인, 기타 유럽계 백인, 미국 선주민, 흑인, 멕시코인, 치카노인 등이 국경지대에서 벌이는 여러 종류의 갈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이전투구에서 탈피할 길은 이 지대를 모든 주민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안살두아는 1장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챕터 「**모하도의 도강/불법 도강**」(*El cruzar del mojado/Illegal Crossing*)에서는 현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된 귀환의 역사를 조명한다. 19세기 말부터 미국 자본과 연계된 멕시코 북부지대의 기업농화, 미국 대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마킬라도라 산업, 멕시코 폐소화의 가치절하 등이 멕시코 경제의 미국 종속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받은 멕시코인들로서는 미국으로의 이주, 안살두아의 관점으로는 아스틀란으로의 귀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경계지대’라는 지리적 상상력에 ‘귀환 오디세이’라는 역사적 서사를 입히려는 안살두아의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 즉 ‘귀환 오디세이’의 서사는 코튼 매더, 존 오’설리반, 프레데릭 잭슨 터너로 이어지면서 완성된 미국 주류의 지리적 상상력에 반하는 새로운 지리적 상상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주류의 지리적 상상력에서 경계선 설정 권력은 앵글로 아메리카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반면, 안살두아는 그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나아가 그들이 확정해 놓은 경계를 넘어서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의 역사를 위대한 문명화의 역사 혹은 위대한 개척의 역사로 포장해 온 공식 역사에 대한 역사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결론

역사적 실체가 명백하다고 보기 힘든 아스틀란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기획은 분명 독특한 지리적 상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할 법도 하다. 아스틀란이라는 신화 혹은 전설이 현실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경계와 경계지대를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봐야 세계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철지난 민족주의적 상상력이나 극히 지역적인 상상력이 아닐까? 등등의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앞의 두 가지 의문이 오히려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가령, 단군신화 사례를 생각해보자. 신화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민족의 조상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신채호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권 상실을 전후해서 민족적 위기감이 고조되었을 때였다. 우리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단군신화를 활용한 것이나, 내부 식민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치카노인들이 아스틀란을 상상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경계와 경계지대의 구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같은 경계선이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경계를 경계지대로 바꾸자는 안살두아의 제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의문 역시 지나친 의혹이다. 안살두아가 아스틀란을 소환하고, 치카노인의 인정 투쟁을 지지하고, 경계지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오로지 지역(local)이나 민족의 문제만 다루고 있다는 선입견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안살두아가 경계지대로 규정하는 지역은 미국 남서부 전체이고, 이 지역을 치카노인들만의 땅이라고 선포하기보다 모두의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 국경은 제3세계가 제1세계에 비비적대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절개된 상처**”라고 말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전 지구적 북(Global North)과 전 지구적 남(Global South)의 대립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면, 그런 의혹

역시 부당한 것이다.

필자 입장에서 안살두아가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지리적 상상이 사실상 역사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것도 대단히 정당한 전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류의 고립주의, 즉 경계선 고수 정책이 미국인의 지리적 상상력에, 나아가 미국의 역사에서 강력한 흐름을 형성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는 허구일 뿐이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혹은 중간 지역들은 다민족, 다인종 사회였다는 시각도 미국 역사에는 존재하고 있다. 새뮤얼 헌팅턴처럼 18세기에 형성된 미국의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 정체성이 멕시코 이주자들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는 한탄도,⁴¹⁾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이들로서는 작금의 상황을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다소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세기 미국이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점에 경계지대에서 치카노들의 기여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은 온당한 일이 분명 아니다. 더구나 점점 더 다민족, 다인종 사회로 화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고립주의나 WASP 정체성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안살두아의 역사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미국의 방향성을 둘러싼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그래서 안살두아의 경계지대 기획은 현재성을 지닌다.

41) Samuel P. Huntington,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141 March-April, 2004, p. 32.

■ 참고문헌

-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 김은중 옮김, 니콜라 밀러·스티븐 하트 편,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옮김, 그린비, 2008.
- 루이스 움베르토 크로스웨이트, 「경계의 미사」, 박은영 옮김, 『지구적 세계문학』 5호, 2015.
- 브라이언 W. 블루엣·올린 M. 블루엣,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주제별 분석과 지역적 접근』, 김희순·강문근·김형주 옮김, 까치, 2013.
-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 vols., 황혜성 외 옮김, 휴머니스트, 2011.
- 우석균, 「글로리아 안살두아, 앵글로 아메리카 이후」, 『지구적 세계문학』 7호, 2016.
- 월터 D. 미놀로,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김은중 옮김, 그린비, 2010.
- 제레미 블랙, 『지도, 권력의 얼굴』, 박광식 옮김, 심산, 2006.
- 존 레니 쇼트, 『지도, 살아 있는 세상의 발견』, 김희상 옮김, 작가정신, 2009.
- 피터 H. 스미스,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 이성형·홍욱헌 옮김, 까치, 2010.
- 후안 곤살레스, 『미국 라티노의 역사』, 이은아·최해성·서은희 옮김, 그린비, 2014.
- Anaya, Rudolfo A. and Francisco A. Lomeli(eds.), *Aztlán: Essays on the Chicano Homeland*, 4th ed.,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98.
- An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2nd ed.,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1999.
- Elliott, John. H., *Empires of the Atlantic World: Britain and Spain in*

America 1492-183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6.

Holynet, <http://www.holybible.or.kr/>.

Huntington, Samuel P., “The Hispanic Challenge”, *Foreign Policy* 141 March-April, 2004.

Jackson Turner, Frederick,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1893, <http://nationalhumanitiescenter.org/pds/gilded/empire/text1/turner.pdf>.

Keating, AnaLouise(ed.), *The Gloria Anzaldúa Reader*,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9.

O’Sullivan, John L. “Annexation”, 1845, <https://pdcrodas.webs.ull.es/anglo/OSullivanAnnexation.pdf>.

Boullosa, Carmen, *Texas, México*, D.F.: Alfaguara, 2012.

❖ ABSTRACT

Gloria Anzaldúa's Borderlands/*La Frontera*:
From the Border to the Borderland

Woo, Suk-Kyun

This paper analyzes Gloria Anzaldúa's borderland proposal through her work *Borderlands/La Frontera* (1987). One of the strong trends of US geographical imagination started from the concept of 'city upon a hill'. It left an important footprint in the American histor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tical history,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isolationism policy. But, this imagination is contradictory because it has exercised the bordering power that demarcates the border and overpasses it as needed. Anzaldúa's geographic proposal consists of transformation of the border into the borderlands. This is a challenge to the bordering power and a challenge to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that has led to isolationism, and ultimately a history war. This is not only a nationalist war aimed at the Chicano's restoration but also a war that can measure the American society's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uture.

Key Words :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border, borderland, bordering power, history war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